

## 한국 고등학생들의 부모형태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

정영순\*\*

본 연구는 가족특성인 가족간의 갈등, 가족응집력, 가족활동 및 책임의 구조화, 감정표현, 독립적 환경, 성취지향적 환경 요인 외에 우울, 스트레스, 친구지지, 교사지지 요인이 부모형태별로 한국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인천의 고등학교 2학년 남녀 청소년 1,908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친부모보다 편부모가정, 편부모보다 계부모가정일 때 자살생각을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연구로서 부모형태별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친부모가정일 때 33.6%, 편부모가정일 때 42.8%, 계부모가정일 때 84.5%로, 본 연구모형은 친부모가정보다 편부모가정, 계부모가정의 학생일 때 더 적절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형태별로 영향요인과 영향을 주는 방향도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부모형태별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부모형태별로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한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가정의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해 똑같은 식으로 개입전략을 세우는 것은 비효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 이 논문은 BK21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문제제기

많은 서구의 연구들(Choquet, Kovess & Poutignat, 1993; de Man, Leduc & Labreche-Gauthier, 1993; Garrison et al., 1991; Kandel, Raveis & Davies, 1991; Meneese & Yutrzanka, 1990; Tousignant, Bastien & Hamel, 1993; Vannatta, 1996)은 결혼사정이거나 가족간의 관계 등 가정환경이 나쁠 때 자살과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뽑은 10대 자살 이유도(서울신문, 1998)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 가족간의 유대관계 붕괴, 학업부진, 부모불화, 우울증 등으로 대부분이 가족관련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가족관련 연구는 별로 많지 않으며 그나마 가설검증 또는 다요인 분석보다는 주로 사례연구나 서술적인 묘사에 한정되어 있다.

가족관련 요인 중 특히 부모형태가 자살행위 및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으나 실제로 부모형태간 자살생각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이 드문 상황이다. 편부모와 계부모 수가 적어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홍나미·정영순 연구(1999)에서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 가족 간에 청소년 자살생각의 차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계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안정된 친부모가정 청소년과 유사하며 편부모가정은 물론 갈등있는 친부모가정보다 훨씬 자살생각을 덜 한다고 밝힌 Spruijt & de Goede(1997)의 연구결과는 부모형태는 물론 갈등과 같은 가족특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형태별 가족특성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 요인들을 연구한 논문은 그래도 많은 편으로 가족간의 갈등, 가족응집력, 감정표현, 가족으로부터 독립, 가족의 성취지향, 활동 및 책임의 구조화 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특성 요인이 연구마다 달라 각 가족특성들이 다른 가족특성들과 비교하여 자살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주지 못한 것이 한계이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특성이 부모형태별로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족특성을 중시하는 연구들과는 달리 많은 연구에서는 우울, 스트레스, 사회지지 등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주요한 예측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가족특성들과 더불어 우울, 스트레스 등

을 포함하여 자살생각을 분석한 Friedrich, Reams & Jacobs(1982)와 Veneese & Yutzenka(1990)의 연구에서는 가족특성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 반면에 우울, 스트레스, 사회지지 등 다른 요인들은 주요한 예측요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는 가족특성 요인과 더불어 주요한 예측요인들로 인식된 스트레스, 우울 등이 고등학생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특성 요인뿐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한국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살생각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요인들의 부모형태에 따른 특징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로 구분하여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형태별로 분석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Stack(1990)에 의하면 가족변수들은 1960년대보다 요즘 더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변수들이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살에서 부모형태와 가족특성의 영향력을 연구한 조사는 많지 않으나, 가족변수가 청소년 자살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거나 주요 예측요인이라고 밝힌 연구들이 많은 편이다.

자살행위를 하는 많은 학생들이 결손가족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여러 연구(Elkind, 1985; Rubenstein et al., 1989; Lester, 1989)에서 가족해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Hirsch & Ellis(1993)와 Spruijt & de Goede(1997)의 연구에서 심각한 자살생각자들이 편부모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계부모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친부모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Spruijt & de Goede(1997)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편부모와 달리 대부분의 계부모가족은 친부모가족과 유사하게 남편 역할의 부재, 낮은 사회적 통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살생각의 부모형태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홍나미·정영순(1999)의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부모

형태별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남녀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Munzer, Sheldon-Keller & Sheras(1995)의 연구는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갈등이 있는 친부모가족의 청소년이 계부모가족의 청소년보다 훨씬 더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Spruijt & de Goede(1997)의 연구결과는 부모형태 외에도 가족특성인 갈등이 자살생각에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계부모가족도 갈등이 많을 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Spruijt et al. (1989)의 연구결과는 계부모가족의 경우에도 갈등요인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살하는 청소년 가족이 만성적인 갈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한 Pfeiffer(198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Meneese & Yutzenka(1990)의 연구에서도 가족이 분노, 공격적, 갈등적 상호관계로 특징지어지면 질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정도가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right(1985)의 연구에서도 자살시도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부모간의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갈등 영향력의 성차를 연구한 Cherlin et al. (1992)의 연구는 가족 내 갈등의 영향력이 소녀들에 비해 소년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갈등 외에도 Friedrich, Reams, and Jacobs(1982)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헌신, 도움, 지지의 정도로 표현되는 응집력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 Zhang and Thomas(1991), Choquet, Kovess & Poutignat(1993)와 Garrison et al. (1991)의 연구에서도 가족응집력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가장 주요한 예언지표 중의 하나로 밝혀졌다. 같은 수준의 우울 또는 생활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도 가족과 응집력이 높은 고등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3.5에서 5.5배 자살률이 낮았다고 보고한 Rubenstein et al. (1989)의 연구는 가족응집력이 주요 예측요인임을 확신시키고 있다. 가족응집력이 남학생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여학생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Meneese, Yutzenka & Vitale(1992)의 연구결과는 가족응집력의 영향에도 남녀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간의 갈등이나 가족응집력보다도 Friedrich, Reams, and Jacobs(1982)와 Meneese & Yutzenka(1990)의 연구에서는 가족 내 규칙과 책임을 명료화하는 구조화를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족특성으로 보았다. 가족 구조화의

중요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청소년의 자살행동이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인 Meneese & Yutzenka(199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Pfeffer(1981)와 Cohen-Sandler et al.(1982)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비구조화가 자살생각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Friedrich, Reams, and Jacobs(1982)는 성취오리엔테이션을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족특성으로 보았다. 여러 연구들도(Davis, 1985; Madison, 1978; McAnarney, 1979) 초기 아동기부터 학업에 대한 성공-실패 모델에 대해 낙인 찍히는 교육제도를 가진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경쟁과 성취에 대한 압력과 이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족특성 외에도 Pfeffer(1981)는 자살 청소년의 가족들은 가족성원들의 자율적인 기능에 대한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하였다. Friedrich, Reams, and Jacobs(1982)도 의존, 우유부단 등 비독립적인 환경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족의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Pfeffer(1981)는 자살 청소년의 가족은 비밀, 비공개된 의사소통으로 가족이 변화되는 것을 방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Friedrich, Reams, and Jacobs(1982)의 연구에서 가족구성원들이 개방적으로 행동하고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고 고무시키는 정도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이 심각해진다고 주장하였다. Meneese & Yutzenka(1990)의 연구에서는 독립적 환경, 가족 내에서의 감정표현은 미약하지만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선행연구들은 가족간의 갈등, 가족응집력, 가족구조화, 감정표현,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성취지향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가족특성 요인들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족특성 요인들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각 가족특성 요인들이 다른 가족특성 요인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Friedrich, Reams & Jacobs(1982)는 가족응집력, 독립적 환경, 가족구조화, 성취지향적 환경을, Meneese & Yutzenka(1990)은 가족 구조화, 독립적 환경, 가족간의 갈등, 감정표현으로 구성된 가족특성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한편 이 두 연구는 가족특성 요인들과 더불어 자살생각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인식된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Friedrich, Reams & Jacobs(1982)는 가족특성이 자살생각의 34%를 설명하였으나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와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

하게 Meneese & Yutzenka(1990)도 가정특성이 자살생각의 37%를 설명하였으나 우울,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 등은 예측요인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우울은 자살 및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인으로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아 왔다. 여러 연구에서(Choquet & Poutignat, 1993; Harter, 1994; Maris et al., 1991; Kandel, Raveis & Davies, 1991; Kumar & Steer, 1995; Wagner et al., 1995; de Man, 1993; Rich et al., 1992; Lewinsohn, 1994, Rudd, 1990) 우울은 자살생각의 강한 예견지표로 나타났다.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과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Meneese & Yutzenka(1990)에서도 우울이 임상집단에서 자살생각의 강력한 예측요인이지만 비임상집단인 일반 청소년에게는 우울보다 다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는 달리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수영의 연구(1995)에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서 자살생각의 약 27%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 청소년에게도 우울이 자살생각의 주요한 예측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임상집단의 우울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울 영향력의 성차에 대한 연구도 일관성이 없었다. Lester & Gatto(1989)의 연구는 여학생에게만 우울이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Bonner et al. (1992)의 연구도 여자 청소년에게만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이와는 달리 신민섭 외(1990)와 홍나미·정영순(1999)의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우울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살행동을 생활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 본 Paykel, Prusoff & Myers(1975)의 연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살시도는 물론 자살생각이 많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많은 연구(Wagner et al., 1995; de Man, 1993; Rich et al., 1992; Cole et al., 1992; Meneese, 1990; Dubow et al., 1989; Kandel et al., 1991, Rudd, 1990)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과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쉽게 받으며,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자살 또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Protinsky et al. (1992)의 연구에서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절망정도가 심한 자살위험 집단이 생활스트레스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역시 Wagner, Cole, & Schwartzman(1995)은 우울증과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게 보고된 집단의 고등학생들이 우울하나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듯이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Huff(1999)의 연구에서 새로운 스트레스와 스트레소 정도가 자살생각의 68%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일반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에게서는 전체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성에게만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한 Adams, Overholser, Spirito(1994)의 연구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에 성차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불충분한 대처자원과 결합된 스트레스 사건이 자살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Nelson(1987)의 주장은 자살생각에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자살생각을 완충한다는 점에서 자살생각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요인이다(Harter, 1994; de Mar, 1993; Cole et al., 1992; Dubow et al., 1988; Rudd, 1990). Folkman & Lazarus(1984)는 가족, 친구 등의 대인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충격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Lewinsohn et al. (1993)은 우울이 통제되었을 때, 가족지지가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여전히 유지되지만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Cole, Protinsky, Howard & Cross(1992)도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자살위험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를 고려했을 때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Kandel, Raveis & Davies(1991)의 연구에서 부족한 동료와의 상호관계가 빈약한 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우울을 유발하여 자살생각으로 발전된다고 하였으며, 높은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보다 동료들의 지지에 의존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역시 Hawton, Orborn & O'Grady(1982)와 Topo & Reznikoff(1982)의 연구에서도 동료와의 어려움이 청소년들의 자살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Kandel, Raveis & Davies(1991)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살생각을 가진 여자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가진 남자 청소년들보다 친구동료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지지의 영향력에 남녀간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친구지지에 비해 자살생각에 대한 교사지지의 영향력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교사와의 갈등이 자살생각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임수영(1995)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과 대응할 정도로 선생님은 권위

와 힘의 상징이기에 이런 선생님과 학생의 심리적 갈등은 학생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Kandel, Raveis & Davies(1991)도 자살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은 중요한 사회적 제도인 가족뿐 아니라 학교에의 애착과 헌신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주요요소인 교사의 지지가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기의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특성이 자살생각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요인인 우울, 스트레스,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자살생각 영향요인들의 부모형태별 차이를 보여준 연구는 거의 없지만, 자살생각의 부모형태간 차이를 보여준 연구 결과들은 부모형태별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차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살생각 영향요인들의 부모형태별 차이가 과연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부각되기에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로 구분하여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 영향요인들의 성차를 보여준 연구 결과들은 부모형태별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성차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부모형태별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남녀간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가족특성인 가족간의 갈등, 가족응집력, 가족구조화, 감정표현, 독립적 환경, 성취지향적 환경 외에도 우울, 스트레스,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근거하여 자살생각 예측 연구모형을 만들었다. 이 연구모형을 가지고 한국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과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형태간에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은 물론 그 영향요인들의 차이가 있다는 가정하에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로 구분하여 부모형태별로 연구모형의 설명력과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인천시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우선 인천시에 있는 25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남, 여 고등학교를 각각 2개씩 무작위 추출하였다. 편부모, 계부모에 대한 분석을 할만큼 학생수를 확보하기 위해 남학교 2개, 여학교 2개의 2학년 학생 197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A학교에서 남자 428명, B학교에서 남자 514명, C학교에서 여자 497명, D학교에서 여자 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표집방법에 의한 표본추출은 부모형태별 학생수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엄격한 부모형태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다. 부모형태별로 동일한 학생수를 추출하는 표집방법이 바람직하겠지만 계부모가정의 학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파악이 된 경우라도 조사에 참여하기를 꺼리거나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표집방법 또한 한계가 있다.

본 조사는 1999년 10월 26일에서 10월 27일 양일동안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먼저 담당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면, 담당교사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배포된 총 1975부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으나, 부모형태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35부, 부모형태 중 소년소녀가장 등 기타로 응답한 32부를 제외하여 총 1,908부가 분석되었다. 부모형태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대부분의 설문지가 계부모 가정의 학생의 것이라고 추정되나 명확하지 않아 계부모 대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대상은 남자는 900명, 여자는 1,008명이었고, 부모형태별로 보면 친부모 1,790명(남 845명, 여 945명), 편부모 101명(남 49명, 여 52명), 계부모 17명(남 6명, 여 11명)이었다. 분석대상 계부모가정 학생수가 적어 계부모 학생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 3) 측정도구

자살생각, 가정환경, 우울, 스트레스,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Reynolds가 개발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신민섭(1992)이 번역한 것을 활용하였다. 30

문항으로 이루어진 SIQ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하지 않지만 자살생각을 보인다는 관찰로부터 제작된 척도로, 신뢰도 계수가  $\alpha = .9630$ 이었다.

가족환경의 측정도구는 Moos에 의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Family Environment Scale(FES)를 활용하였다. 10개의 FES 하위척도 중 갈등, 응집력, 구조화, 표현력, 갈등, 독립성, 성취지향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1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각 하위척도의 10개 문항 중 각각 2문항씩을 제외시켰다. 다시 요인분석을 통해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갈등 7문항, 응집력 7문항, 구조화 5문항, 표현력 7문항, 독립성 6문항, 성취지향 5문항만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가족환경에 대한 신뢰도는  $\alpha = .8867$ 이었고, 갈등은  $\alpha = .7785$ , 응집력은  $\alpha = .8366$ , 구조화는  $\alpha = .4341$ , 표현력은  $\alpha = .7117$ , 독립성은  $\alpha = .6167$ , 성취지향은  $\alpha = .6007$ 이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던 가족구조화 척도가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가족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힌 연구들이 있기에 가족구조화를 연구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Zung이 개발한 Zung Depression Inventory(ZDI)를 신민섭 외(1990)가 번역한 것을 활용하였다. ZDI는 우울증 검사에 많이 사용되는 척도로 신뢰도 계수  $\alpha = .7463$ 이었다.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Mendez 등이 개발한 스트레스 생활사건 척도를 홍원희(1992)가 우리나라 고등학생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신뢰도 계수가  $\alpha = .8734$ 이었다.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측정 도구로는 Dubow와 Ulman의 Social Support Scale를 참고로 하여 한미현(1995)이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만을 사용하였다. 친구지지의 신뢰도는  $\alpha = .9014$ , 교사지지는  $\alpha = .8717$ 이었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

자살생각 점수는 180점이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을

관영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 평균은 26.0(표준편차 28.88)이었으나 자살생각 최소점수는 0점, 최대점수는 180점으로 한번도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대상자가 있는 반면 매일 자살생각을 하는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이상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학생이 95.3%인 반면에 한번도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대상자는 단지 전체의 4.7%에 불과하였다. 그 중 10.3%는 매달 한 번 이상, 2.1%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살생각을 하고 있고, 놀랍게도 0.9%는 거의 매일 자살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자살생각이 고등학생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으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높은 학생도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살생각을 부모형태별로 구분하였을 때, 청소년들은 친부모가정일 때보다 편부모가정일 때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계부모가정일 때 놀랄 만할 정도로 자살생각을 많이 하여 자살생각의 부모형태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더 자살생각을 많이 하여 남녀간 자살생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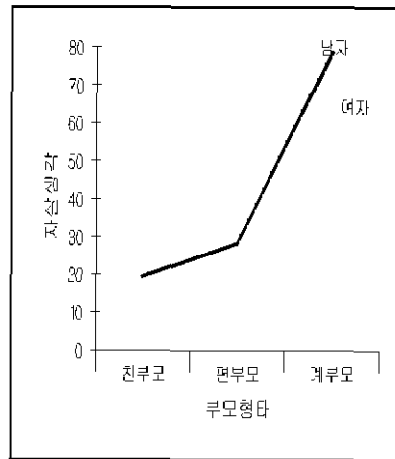
부모형태별 자살생각을 남녀로 구분해 보았을 때, 부모형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표 1〉 부모형태별 남녀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F	
전체 (N=1908)	26.02	28.88	0	180	성별 = .001 부모형태 = 21.566 *** 성별×부모형태 = 2.322 *	
남자 (N=900)	20.19	26.89	0	180		
여자 (N=1008)	31.23	29.60	0	175		
친부모	전체 (N=1790)	25.33	28.08	0		180
남자 (N=845)	19.30	25.37	0	180		
여자 (N=945)	30.68	29.27	0	175		
편부모	전체 (N=101)	31.43	32.79	0		165
남자 (N=49)	28.31	35.72	0	165		
여자 (N=52)	35.00	29.93	0	127		
계부모	전체 (N=17)	66.94	49.89	11		180
남자 (N=6)	78.67	65.16	12	180		
여자 (N=11)	60.55	41.61	11	113		

\* p<.1, \*\*p<.05, \*\*\*p<.01

〈그림 1〉 부모형태별 자살생각



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친부모 가정 또는 편부모가정에 비해 계부모가정일 때 훨씬 자살생각을 많이 하여 뚜렷한 부모형태간 차이를 보였다. 성별효과는 없었으나 남학생의 부모형태별 자살생각의 차이가 여학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부모형태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p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친부모가정, 편부모가정일 때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나 계부모가정일 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한 가정환경

가정환경 점수는 지각한 가정의 분위기를 측정한 것으로 가족특성 요인인 가족 내 갈등, 가족응집력, 가족구조화, 감정표현, 독립성, 성취지향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가정환경은 총 19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가정환경 점수는 123.00(최소 60, 최대 169, 표준편차 16.04)이었다. 부모형태별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가정환경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F=20.762, p < .001$ )하게 나타났다. 친부모가정일 때 평균 123.52(최소 64, 최대 169, 표준편차 15.68), 편부모가정일 때 평균 117.02(최소 72, 최대 161, 표준편차 18.17), 계부모가정일 때 평균 103.65(최소 60, 최대 145, 표준편차 20.99)로 편부모, 계부모가정일 때 가정환경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계부모가정의 가정환경 표준편차가 큰 것은 계부모가정간의 가정환경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계부모가정의 최소점수가 친부모나 편부모가정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 것은 계부모가정 학생

들이 대체로 친부모나 편부모가정보다 더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 내 갈등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개방적으로 표현되는 분노나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족 내에서 화나 다툼의 정도, 가족 내 갈등이 있을 경우 해결노력 정도 등을 질문하였다. 35점 만점에 평균은 17.22(최소 7, 최대 35, 표준편차 4.53)이었고, 부모형태별 갈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F=25.533, p<.001$ )하였다. 친부모가정은 평균 17.19(표준편차 4.45), 편부모가정은 평균 18.78(표준편차 5.22), 계부모가정은 평균 20.94(표준편차 5.29)로 계부모 또는 편부모가정일 때 친부모가정보다 가족 내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력은 가족구성원 서로에 대한 헌신, 도움,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가족간 일체감이 있는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35점 만점에 평균 24.40(최소 6점, 최대 35점 표준편차 4.89)이었고, 부모형태별 가족응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F=22.294, p<.001$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가정일 경우 평균 24.56(표준편차 4.78), 편부모가정일 경우 평균 22.60(표준편차 5.56), 계부모가정일 경우 평균 18.12(표준편차 6.18)로 친부모가정일 때 가장 많은 응집력을 보였으며 계부모가정일 때 가장 적은 응집력을 보였다.

가족구조화는 가족의 활동과 책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구조화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족 내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책임명시 정도, 집안 정리정돈 정도, 가족 내 활동들에 대한 계획 정도 등을 질문한 것이다. 25점 만점에 평균 15.31, 최소 5점 최대 25점, 표준편차 2.52로 조사대상자간에 큰 차이를 보였고 부모형태별 가족구조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F=14.219, p<.001$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가정은 평균 15.39(표준편차 2.47), 편부모가정은 평균 14.31(표준편차 2.86), 계부모가정은 평균 13.35(표준편차 3.60)로 계부모가정일 때 구조화가 가장 안 되고 친부모가정일 때 가장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표현은 가족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허용 정도, 고민, 불평이나 화에 대한 표현 허용 정도 등을 질문한 것이다. 35점 만점에 평균 23.71(최소 8점, 최대 35점, 표준편차 4.30)이었고 부모형태별 감정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F=13.676, p<.001$ )한 차이를 보였다. 친부모가정일 때 평균 23.82(표준편차 4.24), 편부모가정일 때 평균 22.70(표준편차 4.70), 계부모가정일 때 평균 19.00(표준편차 5.06)으로 특히 계부모가정일 때 가족 내에서 감정표현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

독립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족원들이 자신의 일들을 스스로 해내는 정도, 개인의 독립적인 행동을 지지해주는 가족분위기, 가족행사참여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 정도 등을 질문한 것이다. 35점 만점에 평균 20.52(최소 6점, 최대 30점, 표준편차 3.13)였고, 부모형태별 독립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F=13.621$ ,  $p<.001$ )하게 차이를 보였다. 친부모가정은 평균 20.53(표준편차 3.10), 편부모가정은 평균 19.51(표준편차 3.12), 계부모가정은 평균 17.35(표준편차 3.69)로 친부모가정에 비해 계부모가정일 때 훨씬 가족으로부터 비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지향은 학업, 일 등 활동에 대해 성취지향적이거나 경쟁적인 틀로 가족이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족원들이 학업 등의 성취에 대한 관심 및 학업 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정도 등을 질문한 것이었다. 25점 만점에 평균 15.47(최소 5점, 최대 25점, 표준편차 3.13)로 조사대상자간 가족의 성취지향에 큰 차이를 보였다. 부모형태별로 구분하였을 때, 친부모가정일 때 평균 15.49(표준편차 3.10), 편부모가정일 때 평균 15.21(표준편차 3.44), 계부모가정일 때 평균 15.24(표준편차 4.35)로 부모형태간 성취지향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분석에 의하면, 성취지향적 환경만 제외하고 친부모보다 편부모가정, 편부모보다 계부모가정일 때 높은 가족간의 갈등, 낮은 가족응집력, 낮은 가족구조화, 낮은 감정표현, 낮은 독립적 환경을 보여 부모형태별 차이가 동세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형태에 비해 가족특성 요인들의 성별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형태별 가족특성을 남녀로 구분하였을 때 흥미롭게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형태별 가정환경이 남녀간에 다른 양상을 띄었다. 남학생의 경우 편부모가정일 때 가정환경이 가장 열악한 한편 여학생의 경우 계부모가정일 때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별로 보았을 때, 편부모가정의 남학생과 계부모가정의 여학생의 경우 높은 가족간 갈등, 낮은 가족응집력, 낮은 가족내 감정 표현정도, 낮은 독립적 환경, 낮은 가족활동 및 책임 구조화를 보였다. 다만 성취지향인 경우 다른 양상을 띠어 편부모가정 남학생들의 가정이 가장 덜 성취지향적인 반면에 계부모가정 여학생들의 가정이 가장 성취지향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표 2〉 남녀 고등학생들의 부모형태별 가족특성

	전체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가정환경	122.23	123.69	122.74	124.16	105.33	119.50	119.00	102.73
갈등	17.23	17.21	17.11	17.11	21.83	18.48	18.57	20.45
응집력	24.52	24.29	24.68	24.22	17.83	22.94	22.70	18.27
구조화	15.35	15.28	15.45	15.32	13.17	14.90	14.82	13.45
표현력	23.50	23.91	23.59	24.00	19.50	23.23	23.11	18.73
독립성	20.17	20.70	20.24	20.78	16.67	19.88	19.87	17.73
성취지향	15.82	15.16	15.86	15.15	12.00	14.87	14.91	17.00

## 3) 우울·스트레스·친구의 지지·교사의 지지와 자살생각

우울은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슬픈 감정을 측정한 것으로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더 우울함을 반영하고 있다. 총 20점 만점에 조사대상자의 평균 우울 점수는 7.40(표준편차 3.65)이고 최소 0점, 최대 20점으로 조사대상자간의 우울 정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친부모가정일 때 평균 7.30(표준편차 3.65), 편부모가정일 때 평균 8.66(표준편차 3.26), 계부모가정일 때 평균 9.76(표준편차 4.31)으로 계부모가정일 때 가장 우울한 반면에 친부모가정일 때 가장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형태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F=10.338, p<.001$ ) 하였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 110점 만점 중 조사대상자의 평균 스트레스 점수는 59.45이었으나 최소점수는 17점, 최대점수는 108점으로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가정일 때 평균 59.09(표준편차 13.21), 편부모가정일 때 평균 63.74(표준편차 12.10), 계부모가정일 때 평균 72.18(표준편차 16.58)로 부모형태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F=13.953, p<.001$ ) 하였다. 계부모가정의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최소점수가 친부모, 편부모가정의 학생보다 훨씬 높아 계부모가정의 학생들이 대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기능적 측면에서 친구로부터의 지지받은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총 40점 단점에 평균 29.71(최소 0, 최대 40, 표준편차 5.95)이었다. 친부모가정일 때 평균 29.77(표준편차 5.88), 편부모가정일 때 평균 28.91(표준편차 6.58), 계부모가정일 때 평균 28.35(표준편차 8.95)로 부모형태간 친구지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는 기능적 측면에서 교사로부터 지지받은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총 40점 단점에 평균 22.12(최소 0, 최대 40, 표준편차 6.30)로 친구지지에 비해 교사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친부모가정일 때 평균 22.08(표준편차 6.27), 편부모가정일 때 평균 22.85(표준편차 6.32), 계부모가정일 때 평균 21.53(표준편차 9.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친부모가정에 비해 편부모가정일 때 교사의 지지를 약간 더 받고 계부모가정일 때 지지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분석에 의하면, 친부모보다 편부모가정, 편부모보다 계부모가정일 때 높은 우울, 높은 스트레스를 보여 부모형태별 우울과 스트레스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부모형태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스트레스, 친구지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별간 차이를 보였다. 부모형태별 우울과 스트레스를 다시 남녀로 구분하였을 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모두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남녀 모두 친부모가정보다 편부모가정, 편부모가정보다 계부모가정이 더 우울하고 더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의 부모형태간 차이가 큰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부모형태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친구지지는 부모형태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어떤 부모형태이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친구지지를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교사지지의 경우 남녀 모두 편부모일

<표 3> 부모형태 및 성별에 따른 우울, 스트레스,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

	전체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우울	6.32	8.36	6.16	8.32	8.65	8.79	10.17	9.55
스트레스	56.59	62.01	56.06	61.77	63.24	64.67	76.83	69.64
친구지지	28.76	30.57	28.83	30.61	27.76	30.02	26.33	29.45
교사지지	22.04	22.18	22.03	22.12	22.47	23.44	21.17	21.73



때 친부모보다 많이 받는 편으로 지각하는 반면 계부모일 때 오히려 교사<sup>1</sup>의 지지를 적게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부모형태간 교사지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형태간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단순회귀분석시,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형태의 설명력은 단지 2%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자살생각에 대한 가족특성의 설명력은 13.5%로 나타나 부모형태에 비해 가족특성이 자살생각에 더 영향력이 큰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 스트레스, 친구지지, 교사지지 각각의 영향력을 보면, 우울은 자살생각의 23.7%를 설명하였고 스트레스는 29.0%로 가정환경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시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이 포함되어야 함이 명백해졌다. 친구지지의 설명력은 3.1%, 교사지지는 3.6%로 그 영향력이 우울과 스트레스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여 이 요인들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가족특성의 영향력을 부모형태별로 보았을 때,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형태 영향력이 미약하였지만 친부모가정인 경우 11.6%이던 것이 편부모가정인 경우 33.6%, 계부모가정인 경우 75.6%로 편부모와 계부모가정일 때 가족특성의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어 부모형태요인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친구지지의 설명력도 친부모가정에 비해 편부모가정일 때 8.2%, 계부모가정일 때 25.9%로 증가하고, 또한 교사지지의 설명력도 편부모가정일 때 6.1%, 계부모가정일 때 18.9%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요인이 간과될 수 없게 되었다. 우울과 스트레스도 부모형태별 차이를 보여 우울의 설명력은 친부모가정인 경우 23.4%이던 것이 계부모가정인 경우 34.3%로,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친부모가정인 경우 28.0%이던 것이 계부모가정일 때 63.3%로 증가한 반면에 편부모가정일 때 우울과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친부모가정일 때에 비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같이 부모형태에 따라 가정환경, 우울, 스트레스,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설명력이 크게 달라지는 연구결과는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을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가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상기에서 가족특성뿐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살생각의 34.8%가 설명되어 가족특성만으로 설명한 것보다 21.3% 정도가 더 설명되었다. 이는 가족특성이 자살생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는 다른 것으로 가족특성 외에 스트레스, 우울,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의 합산인 가정환경보다 오히려 스트레스 영향력이 2배 이상 높았고 우울의 영향력도 가정환경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영향력은 상당히 작았음에도 전체 선평수가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특성 중 가족응집력, 감정표현만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구조화된 가정환경, 가족간의 갈등, 성취지향적인 가정환경, 독립적인 가정환경을 자살생각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연구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표 4> 자살생각에서의 가족특성 영향력 분석

	전체 (n=1938)		친부모 (n=1790)		편부모 (n=101)		계부모 (n=17)	
	Beta	T	Beta	T	Beta	T	Beta	T
갈등	.015	.602	.012	.448	.156	1.203	.110	.261
응집력	-.096	-2.977***	-.085	-2.563**	-.119	-.795	.027	.043
구조화	-.006	-.275	-.015	-.683	.316	3.083***	-.310	-.745
표현력	-.067	-2.285**	-.061	-2.002**	-.181	-1.401	-.367	-.670
독립성	-.021	-.848	-.012	-.488	-.165	-1.405	.046	.119
성취지향	.024	1.241	.043	2.093**	-.077	-.947	-.111	-.507
우울	.194	7.447***	.209	7.792***	.059	.476	-.392	-.895
스트레스	.347	13.219***	.337	12.381***	.277	2.390**	.672	1.561
친구지지	.048	2.310**	.055	2.547**	-.083	-.874	-.115	-.385
교사지지	-.045	-2.248**	-.050	-2.437**	.081	.806	.138	.452
	R2= .348***		R2= .335***		R2= .428***		R2= .845*	

\* p<.1, \*\* p<.05, \*\*\* p<.01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가정의 학생수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탐색적 차원에서 부모형태별로 구분하여 자살영향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예상했던 대로 부모형태에 따라 연구모형의 설명력과 영향요인이 다른 양상을 띠었다. 계부모가정의 학생수가 너무 적어 그 결과를 논의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계부모가정을 포함하여 조사결과를 기술해 보면,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친부모인 경우 33.6%, 편부모인 경우 42.8%, 계부모인 경우 84.5%로, 계부모일 때 연구모형이 자살생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세 부모형태 모두에서 가정환경이 중요하지만 친부모가정일 때 세 번째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편부모가정, 특히 계부모가정의 학생인 경우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되어 편부모가정일 때는 첫 번째 요인이 되었고 계부모가정일 때는 편부모보다 영향력이 훨씬 높았지만 두 번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세 부모형태 모두에서 스트레스가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인다. 친부모가정, 계부모가정일 때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는데, 특히 계부모가정의 학생의 스트레스 영향력이 친부모가정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이 가장 주요 요인인 편부모가정일 때 스트레스 영향력은 친부모가정 수준보다 낮아져 두 번째 영향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여진 우울은 친부모가정일 때 두 번째 주요 요인이었으나 계부모가정일 때 다른 요인들에 비해 우울의 영향력이 낮았고 편부모가정일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영향력은 세 부모형태 모두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친부모가정과는 반대로 계부모가정일 경우 우울이 적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친부모가정과는 반대로 편부모와 계부모가정 학생들일 경우에만 친구지지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교사지지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부모형태별 가족특성을 비교해보면, 친부모가정 학생일 경우 가족응집력, 감정표현, 성취지향적 환경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편부모가정일 경우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크게 부상되어 영향요인 중 가족구조화가 스트레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친부모가정에 비해 감정표현, 독립적 환경, 가족간 갈등, 가족응집력의 영향력이 훨씬 있는 편으로 나타나 다양한 가족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부모가정의 학생일 경우 편부모에 비해 특

정 가족특성만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은 상당히 높았음에도 대상자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계부모가정인 경우 감정표현의 영향력이 커져 가족특성 요인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상했고, 가족구조화의 영향력도 편부모가정의 학생만큼 높았으나 편부모가정과는 달리 계부모가정의 학생들은 낮은 가족구조화일 때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형태별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부모형태별로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부모형태별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가 적은 계부모가정을 제외하고 친부모와 편부모가정의 학생들을 남녀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이 친부모가정의 남학생일 때 25.8%, 친부모가정의 여학생일 때 36.2%, 편부모가정의 남학생일 때 46.7%, 편부모가정의 여학생일 때 49.5%로 친부모가정의 여학생일 때에도 본 연구모형이 자살생각을 잘 설명해주는 반면에 친부모가정의 남학생의 자살생각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모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가정의 남녀 학생 모두 스트레스, 우울, 가족특성 요인 순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에 남녀간 차이를 보였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높아진 반면에 우울과 가족특성 요인들의 영향력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여학생인 경우 스트레스 영향력은 약간 낮아진 반면에 우울과 가족특성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져 자살생각 영향요인들의 영향력이 남녀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감정표현이 자살생각에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인 경우 가족응집력, 성취지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 요인이 달라졌다.

편부모가정의 학생인 경우 남녀간 자살생각 영향요인이 친부모가정에 비해 훨씬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가장 가정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낀 편부모가정의 남학생일 때 자살생각에 미치는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여학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구조화, 가족응집력, 감정표현이 스트레스보다 영향력이 큰 요인이었는데, 특히 가족구조화는 스트레스보다 2배나 큰 영향력을 보였다. 반면에 여학생일 경우 스트레스 영향력이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가족독

〈표 5〉 부모형태별 남녀 자살생각에서의 가족특성 영향요인 분석

	전 체 (n=1908)				친부모 (n=1790)				편부모 (n=101)			
	남 (n=900)		여 (n=1008)		남 (n=845)		여 (n=945)		남 (n=49)		여 (n=52)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갈 등	-.026	-1.683	.054	1.535	-.024	-1.604	.044	1.198	.056	.256	.275	1.596
응집력	-.091	-1.950*	-.088	-1.908*	-.016	-1.274	-.090	-1.900*	-.274	-1.014	-.025	-.122
구조화	-.002	-.054	-.007	-.252	-.022	-.641	-.008	-.266	.409	2.311**	.154	1.246
표현력	-.084	-2.016**	-.049	-1.148	-.067	-1.547**	-.049	-1.115	-.231	-1.111	.057	.288
독립성	-.013	-.347	-.046	-1.303	-.016	-.443	-.032	-.874	-.062	-.365	-.319	-1.793*
성취 지향	-.009	-.311	.057	2.112**	.033	1.049	.061	2.145**	-.137	-1.083	-.012	-.101
우울	.121	3.141***	.197	5.564***	.128	3.216***	.210	5.732***	.082	.383	.003	.018
스트레스	.376	9.621***	.319	8.994***	.363	8.330***	.313	8.531***	.204	1.092	.386	2.393**
친구 지지	.015	.463	.043	1.490	.021	.647	.049	1.615	-.180	-1.143	-.102	-.732
교사 지지	-.017	-.561	-.071	-2.605***	-.019	-.598	-.077	-2.715***	.089	.581	.087	.599
	R <sup>2</sup> =.285***		R <sup>2</sup> =.371***		R <sup>2</sup> =.253***		R <sup>2</sup> =.362***		R <sup>2</sup> =.467***		R <sup>2</sup> =.495***	

\* p&lt;.1, \*\* p&lt;.05, \*\*\* p&lt;.01

립성, 가족간의 갈등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남녀간 친부모, 편부모가정 학생들의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는 부모형태만으로 구분하여 자살생각을 예측하기보다는 부모형태를 다시 성별로 구분하여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5. 논의

자살생각이 고등학생들에게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조사결과는 청소년 자살생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됨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거의 매일 자살생각을 한다는 학생들은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계부모가정의 고등학생들이 친부모, 편부모일 때보다 훨씬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편부모가정의 학생일 때 가장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Hirsch & Ellis(1993)의 연구결과와 계부모가정 학생일 때 친부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살생각을 한다는 Spruijt & de Goede(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계부모가정은 손상되지 않은 가족구조를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Spruijt & de Goede(1997)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계부모가족은 친부모가족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부모가족보다도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안정되지 못한 가족으로 보인 계부모가정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가족 상호관계를 더 생각하고 내재화한다는 Munzer, Sheldon-Keller & Sheras(1995)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부모형태와는 별도로 가족특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 Spruijt & de Goede(1997)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환경이 자살생각에 고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환경이 다른 예측요인들에 비해 자살생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Friedrich, Reams & Jacobs, 1982; Meneese & Yutzenka, 1990)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가정환경뿐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이 주요한 영향요인이었고 미미하지만 친구지지도와 교사지지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대해 가정환경뿐 아니라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가족특성 요인 중 가족응집력, 감정표현만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가족응집력을 주요 요인으로 보는 여러 연구결과(Friedrich, Redams, and Jacobs, 1982; Zhang and Thomas, 1991; Choquet, Kovess & Poutignat, 1993;

Garrison, et al., 1991; Rubenstein et al., 1989)와 가족 내 감정표현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Friedrich, Reams, and Jacobs(198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구조화된 가정환경을 가장 주요한 가족특성으로 본 연구결과(Meneese & Yutzenka, 1990), 가족간의 갈등을 자살생각의 주요 요인들이라고 보는 연구결과(Spruijt & de Goede, 1997; Meneese & Yutzenka, 1990; Pfeffer, 1981; Wright, 1985)들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취지향적인 가정환경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연구결과(Friedrich, Reams, and Jacobs, 1982; Davis, 1985; Madison, 1978; McAraney, 1979), 독립적인 가정환경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Friedrich, Reams, and Jacobs, 1982; Meneese & Yutzenka, 1990; Pfeffer, 1981)와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가정특성이 서구의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한국과 서구 고등학생들이 증시하는 가족특성에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탐색적 차원에서 기존 연구방식과는 다르게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을 부모형태별로 분석하였을 때, 연구모형의 설명력과 영향요인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계부모가정의 학생수가 적어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가정의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을 똑같은 식으로 예측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편부모, 계부모가정일 경우에 자살생각에 가족특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친부모의 경우 가족특성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요인들이 더 주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부모형태가 다를 경우 자살생각을 똑같이 예측하고 개입 전략을 똑같이 세우는 것은 비효과적임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다. 다른 요인에 비해 스트레스요인은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준 연구결과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친부모가정보다 두 배 이상 되는 계부모가정인 경우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을 특별히 주목해야 하며, 그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주요한 자살생각 영향요인으로 인식된 우울이 친부모가정인 경우 주요한 요인이었으나 오히려 계부모가정인 경우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떨어졌고 편부모가정인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형태별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는 또한 부모형태에 따라 주력해야 할 가족특성관련 프로그램 전략이 달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여준 것과는 달리 가족응집력, 가족간 갈등, 성취지향, 독

립성은 세 부모형태 모두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족구조화를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한 Friedrich, Reams, and Jacobs(1982) 연구와 Meneese & Yutzenka(1990)의 연구와는 달리 친부모가정인 경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편부모가정과 계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자살생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을 주는 방향이 상반되어 편부모가정의 경우 Friedrich, Reams, and Jacobs(1982), Meneese & Yutzenka(1990)의 연구결과와 반대로 가족구조화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에 계부모가정의 경우 그들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게 가족구조화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riedrich, Reams, and Jacobs(1982), Meneese & Yutzenka(1990)의 연구에서 미약한 영향요인이었던 감정표현이 계부모가정에서는 가족특성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친부모가정과 편부모가정 학생들에게는 미약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부모형태별로 영향을 주는 방향이 상반되거나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가족특성에 따라 부모형태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편부모 남학생과 계부모 여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가정환경이 열악하다는 연구결과는 연구모형의 설명력과 영향요인에 친부모가정의 남학생, 편부모가정의 남학생, 계부모가정의 남학생, 친부모가정의 여학생, 편부모가정의 여학생, 계부모가정의 여학생 간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상자수가 적은 계부모가정의 학생을 제외하고 친부모와 편부모가정의 학생들을 남녀로 구분하였을 때, 실제로 친부모가정의 남학생, 친부모가정의 여학생, 편부모가정의 남학생, 편부모가정의 여학생 간에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물론 영향요인이 부모형태별 설명력과 영향요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친부모가정일 경우 남녀 공통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으나 우울과 가족특성 요인의 경우 남녀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 친부모가정의 남녀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편부모가정일 경우 친부모가정보다 자살생각 영향요인이 남녀간에 다른 양상을 보여 편부모가정의 남녀학생에게 똑같이 접근하는 것은 비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계부모가정의 학생수가 적어 계부모가정의 남녀 학생들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부모형태별로 분석하는 것보다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가정의 학생을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좀 더 나은 표집방안을 모색하여 후속 연구로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 영향 요인을 남자친부모, 남자편부모, 남자계부모, 여자친부모, 여자편부모, 여자계부모 학생들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자살생각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배성구. 1998.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행동특성.”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려대학교.
- 서울신문. 1998년 9월 10일. pp. 18.
- 신민섭·박광배·오경자·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pp. 1~19.
- 신민섭·박광배·오경자. 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pp. 286~297.
- 윤성림. 1990. “자살생각경험을 지닌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석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임수영. 1995.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한미현. 1995.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박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홍나미·정영순. 1999. “청소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7. pp. 449~473.
- 홍원희. 1992. “성격특성이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Adams, D. M., Overholser, J. C., & A., 1994. “Stressful life event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attemp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9. pp. 43~48.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A mental-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pp. 43~58.
- Bonner, R. & Rich, A. 1987. “Toward a predic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pp. 50~63.
- Calson, G. A. & Cantwell, D. P. 1982. “Suicidal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pp. 361~368.

- Cohen-Sandler, R., Berman, A. L., & King, R. A. 1982. "A follow-up study of hospitalize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4), pp.398~403.
- Choquet, M., Kovess, V. & Poutignat, N. 1993. "Suicidal Thoughts among Adolescents: an intercultural Approach." *Adolescence*, 28(111), pp.649~659.
- Cole, D. E. Protinsky, H. O. & Cross, L. 199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dolescence*, 27(108), pp.813~818.
- Cole, R. E., Wagner, B. M., Schwartzman, P. 1995. "Psychosocial Correlates of Suicidal Attempts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Yout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3), pp.358~372.
- Davis, J. M. 1985. "Suicidal Crises in Schools." *School Psychology Review*, 14, pp.313~324.
- De Man, A. F. Leduc, C. P. & Labreche-Gauthier, L. L. 1993. "Correlations of suicidal ideation in French-Canadian Adolescents: Personal variables, Stress, and Social Support." *Adolescence*, 28(112), pp.819~830.
- Dubow, E. Kausch, D., Blum, M., Reed, J. & Bush, E. 1989.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 Child Psychology*, 18(2), pp.158~166.
- Elkind, D. 1985. "Egocentrism redux." *Developmental Review*, 5, pp.218~226.
- Folkman, S. & Lazarus, R.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New York.
- Friedrich, W., Reams, R., & Jacobs, J. 1982.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5), pp.403~407.
- Garrison, C. Z., Addy, C. L., Jackson, K. L. 1991. "A longitudinal study of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0(4), pp.597~603.
- Harter, S. & Marold, D. B. 1993. "Psychosocial Risk Factors Contributing to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64, pp.71~91.
- Hawton, K., Orborn, M. & O'Grady, J. 1982. "Classification of Adolescent Who Take Overdos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0, pp.123~131.
- Hirsh, J., Ellis, J. 1993. "Family Support and Other Social Factors Precipitating Suicidal Ide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 Association*(101st, Aug).
- Huff, C. O., 1999. "Source, recency, and degress of stress in adolescence and suicidal ideation." *Adolescence*, Spring 1999, pp.82~89.
- Kandel, D. B., Raveis, V. H.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pp. 289~309.
- Lester, David, Gatto, Jeri-Lynn. 1989. "Self-Destructive Tendencies and Depression as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Teenagers." *Journal of Adolescence*, 12(2), pp. 221~223.
-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 1993.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ith a history of suicidal attemp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pp. 60~68.
- Madison, A. 1978. *Suicide and Young People*. New York: Seabury Press.
- Maris, R. W., Berman, A. L., Maltzberger, J. T., & Yufit, R. I. (Eds). 1991.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uicide*. New York: Guilford.
- McAnarney, E. R. 1979. "Adolescent and Young Adult Suicide in the United States: A Reflection of Societal Unrest." *Adolescence*, 14, pp. 765~774.
- Meneese, W. B. & Yutrzenka, B. A. 1990.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mong Rural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3), pp. 206~212.
- Meneese, W. B., Yutrzenka, B. A. & Vitale, Patrick. 1992. "An analysis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Current Psychology: Research & Review*, 11(1), Spring 1992, pp. 51~58.
- Munzer, J., Sheldon-Keller, A., Sheras, P. 1995, "Pathway of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Poster presentation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nnual Convention*, New York.
- Nelson, F. L. 1987. "Evaluation of a youth suicide prevention school program." *Adolescence*, 22(88), pp. 813~826.
- Paykel, E. S., Prusoff, B. A. & Myers, J. K. 1975. "Suicide attempts and recent life even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 pp. 327~333.
- Pfeffer, C. R. 1981. "Suicidal behavior of children: a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8(2), pp. 154~159.
- Rich, A. R., Kirkpatrick-Smith, J., Bonner, R. L. & Jans, F., 1992. "Gender Differences in Psychosocial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2(3), pp. 364~373.
- Rubenstein, J. L., Heeren, T., Housman D., et al., 1989. "Suicidal behavior in normal adolesc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pp. 59~71.
- Rudd, D. 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e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1), pp. 16~30.

- Spruijt, Ed, & de Goede, Martijn. 1997. "Transitions in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well-being." *Adolescence*, 32(128). pp.897~911.
- Spruijt, A. P., & Hendrickx, J. J. P., 1995. "A typology of stepfamilies in the Netherlands." In F. Deven(Ed.), *Research on reconstituted families in Europe*.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tack, S., 1990. "Introduction: Suicide and family factors." *Family Perspective*, 24. pp.3~5.
- Wright, L. S. 1985. "Suicidal Thoughts and their Relationship to Family Stress and Personal Problems among High School Seniors and College Undergraduates." *Adolescence*, 20, pp.575~580.
- Zhang, J., & Thomas, D. L., 1991. "Family and religious influences on suicidal ideation." *Family Perspective*, 25. pp.301~321.

##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According to Parental Type

Chung, Young-Soon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and factors such as family conflict, cohesion, organization of family activities, expressiveness, independence, achievement orientation, depression, stress, and support of friends and teacher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student's parental type.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1908 high school students in the 11th grade from the city of Incheon. The results showed that in both males and females, suicidal ideation was greater in stud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than two natural-parent families and greater in step-parent families than in single-parent families. As an exploratory study,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parental type showed that the study model accounted for 33.6% for students from two natural-parent families, 42.8% for students from single-parent families and 84.5% for students from step-parent families, of the variance in suicidal ideation. This indicates that the study model is more appropriate for application to students from single-parent and step-parent families.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at the factors of influence and the way these factors make an influence tended to differ according to parental type. This indicates that in terms of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it is more effective to study students according to parental type than as a whole. It also indicates that it is ineffective to take the same approach in dealing with suicidal ideation for students with different parental types.